

■ S-605 ■

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infliximab 사용 중 식도종격루가 합병된 폐결핵 한 예

경희대학교 의과 대학 병원 류마티스내과

*최은용, 김소미, 이연아, 홍승재

TNF (tumor necrosis factor) 길항제는 류마티스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, 결핵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결핵의 유병률이 높은 한국과 아시아국가에서는 주의를 요한다. 최근 저자들은 33세 남성인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infliximab 사용 후 식도종격루가 합병된 폐결핵을 경험하였다. 이 환자는 과거 결핵 병력이나 접촉 병 력이 없었으며, TNF 길항제 사용 전 잠복결핵의 선별검사로 시행한 QuantiFERON-TB Gold 검사에서도 음성을 보여 infliximab 사용을 시작하였다. Infliximab 3회 사용 후 폐결핵이 발병하였으며 이후 항결핵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결핵의 합병증으로 식도 천공을 동반한 식도 종격루가 발생하여 늑골간근 피판술 및 식도 봉합술을 시행하였다. 현재 PPD 검사 또는 interferon-gamma release assay가 TNF 길항제 사용 전 잠복결핵의 선별검사로 사용되고 있으나, 이 증례와 같이 위음성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심각한 결핵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.

■ S-606 ■

항인지질 항체증후군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프스에서 병발한 May-Thurner 증후군 1예

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*강종완, 은정수, 김나리, 김지훈, 배기범, 임철현, 남언정, 강영모

May-Thurner 증후군은 우측 총장골동맥과 허리뼈 몸통사이의 좌측 총장골정맥이 우측 총장골동맥의 만성적인 박동성 압박에 의해 국소적인 혈관내막 증식이 일어나고 그 결과 좌측 하지에 정맥 혈전이 생기는 질환이다. 항인지질 항체증후군이 동반된 전신홍반루프스에 병발한 May-Thurner 증후군이 병발한 증례는 보고된 바 없다. 본 증례는 좌측 하지 부종을 주소로 내원하여 항인지질 항체증후군과 전신홍반루프스에 병발된 May-Thurner 증후군으로 혈관 내 혈전 용해 및 스텐트 삽입술로 호전되어 보고하는 바이다. 증례: 35세 여자 환자로 하루전 발생한 좌측 하지 부종을 주소로 내원하였다. 내원 11년 전 전신홍반루프스로 진단받고 저용량 스테로이드,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등으로 치료 받았다. 생체징후는 정상이었으며 좌측 하지의 함요 부종이 관찰되었으나 국소적인 열감은 보이지 않았다. 혈액 검사에 ESR 39mm/hr, CRP 1.56 mg/dL, 항핵항체 1: 160 (Homogenous pattern)이었고, 항dsDNA항체, C3/C4, antithrombin III, protein C/S는 정상이었다. 항cardiolipin IgA 음성/ IgM 음성/ IgG 23PL, Lupus anticoagulant 양성(1.5, confirmative)이었다.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좌측 총장골정맥에서 표층 대퇴정맥에 이르기까지 심부 정맥혈전증이 관찰되었으며 폐색전증은 동반되지 않았다. 좌측 총장골정맥이 우측 총 장골동맥과 허리뼈 몸통사이에서 압박되어 혈전증이 유발되는 May-Thurner 증후군을 진단하였다. 진단 즉시 항혈전치료 시작하였으며 유로키나제를 이용한 혈관 내 혈전용해요법 시행하였으나 혈관 촬영술 결과 혈류 호전이 없어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후 자가 팽창 스텐트를 삽입하였다. 환자의 좌측 하지 부종은 호전되었으며 추적 컴퓨터 단층 촬영 상 이전과 비교하여 심부 정맥 혈전의 크기가 감소된 상태로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.